

호매칼럼



김명화 /교육학박사·동화작가

검은 토끼해 올 한해 어떻게 지낼까 생각해 본다. 새해 아침 식사를 하고 담양에 갔다. 담양 관방천 앞 영산강 상류가 꿈꿨었다. 남녀노소 얼음 빙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있다. 아이들은 언덕에 썰매장을 만들었다. 작년 12월 말에 내렸던 하얀 눈이 준 선물이다.

새해 달력을 선물 받았다. 달력을 보면서 23년에는 어떤 날이 휴일일까? 언제 여행을 가지? 언제 생일이 있지? 하면서 달력을 넘겼다. 달력을 보니 불연듯 생각나는 전시가 있다. 2019년 서울 석파정 미술관에서 본 '안 봐도 사는데 지장없는 전시'다.

한해를 두고 날짜에 맞춰 무슨 일을 할까? 하며 일상을 가벼운 소품과 함께 전시해 놓았는데 한 장면씩 보니 재미있었다. 큰 계획이 아니라 소소한 삶을 정리해 놓아 더 마음에 다가왔다.

달력을 보면서 올해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생각하면서 23년 한

해 달력을 넘겨 본다.

23년 새해가 시작되어 1년의 삶을 생각해 본다. 1월 2일 가평에 간다. 눈이 쌓인 하얀 설원을 그리워 해도 되겠지? 23년에 첫 번째 여행을 설레며 기록한다. 그렇게 가고 싶었던 겨울 가평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가평에 가면 것을 사야지. 덧붙여 쓴다.

2월 계획은 뭐지? 2월은 11월 같은 계절이다. 봄이 오는 길목이다.

2월 19일 우수다. 봄이 오는 것 같아 좋다. 개울가 버들강아지 만나러 가자. 3월 1일 유관순 누나의 대한독립 만세 소리를 목청 높여 불러 본다. 4월 3일 완연한 봄날이다. 꽃놀이 가자. 섬진강 사설암 가는 길에 벚꽃 물결이 출렁이겠지. 인심이 넉넉한 아주머니의 국수도 먹어보자. 주인장의 정성이 담긴 반찬통이 그립다.

5월 1일 노동자의 날이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외쳐본다. 23년의 30%가 가벼웠지만 그래도 토끼해

검은 토끼 뛰어라

에 열심히 뛰어보려고 한다. 토끼야 달려라.

시간은 어느덧 흘러 가정의 날이다. 대한의 모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자. 대한의 부모들,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다. 대한의 제자들, 스승의 은혜 기간이다.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달 5월이 지나간다.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다. 6월 22일 단오다. 춘향이와 이몽룡이 그대를 타러 남원으로 가자. 광한루에서 춘향전 한 토막을 볼 수 있겠네. 시간이 가면 김병중 미술관도 들려야지.

7월 본격적인 여름이다. 25일 휴가 시작이다. 어디로 휴가를 떠나야 할까? 잠시 일을 멈추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지. 9월 벌써 한해가 70%가 지났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시간이다. 10월 27일 목요일,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잠시 접어두어야 할 시간이다. 따뜻한 차가 그리워지는 계절이다.

11월 13일 가족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날이다. 그동안 인사를 나누지 못했다면 가족들에게 안도현의 '가을 엮서'라도 부쳐야 하는 시간이다.

12월 31일 올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분 모두 모여서 놀자. 좋아하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23년을 보내자. 그리고 24년을 준비하자. 한해의 달력을 넘겨보니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일들이 생겼는지 올해가 궁금해진다.

1월 1일 뉴스에서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해돋이를 위해 많은 사람이 집결했다고 한다. 1월 1일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올 한해를 계획했을 것이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소원을 빌었을 것이다.

토끼는 귀엽고 순하며 지혜로운 동물이다. 토끼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 별주부전이 있다. 별주부전은 조선 후기 판소리 계열 소설로 동물들의 의인화한 우화다. 별주부전에서 토

끼는 진죄를 내어 옥공에서 살아 나간다. 위기를 지혜로 목숨을 건진다.

계묘년 경제 전망은 어렵다고 한다. 정치도 답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도 밝은 전망은 힘들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 토끼의 지혜로 잘 이겨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토영삼굴(兎營三窟)'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사자성어를 풀어보면 '토끼는 자기가 위험할 때를 대비하여 굴을 세 개를 뚫어놓는다.'고 한다. 계묘년 검은 토끼의 지혜를 모아 뛰다 보면 한해를 잘 살지 않을까 싶다.

한해 달력을 보고 1년을 어떻게 살까? 생각해 보니 벌써 하루가 지났다.

23년 계묘년에는 토끼의 지혜를 빌려 계획도 세가지 정도는 짜보아야 한다. 다시 달력을 펼쳐 든다. 이번 계획은 어떻게 일을 할까? 시작해 본다.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잊지 말자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김경진 /강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임인년(壬寅年)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새로운 계묘년(癸卯年)인 '검은 토끼의 해'다. 이번 계묘년은 육십간지가 100번째를 돌파한 해이다.

그리고 2022년은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진출하는 기쁜 일도 있었지만 할로윈 이태원 참사로 수백 명의 젊은이가 목숨을 잃는 국가적인 큰 사건 또한 발생하였다. 우리는 항상 연말이 다가오면 지난

해 중요 사건·사고를 돌아보고, 한해를 반성하며 새로운 한해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려 한다.

또한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도움의 손길을 주며 현재 내 상태를 감사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한해를 마무리 하려 한다.

내 주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어려움을 함께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고, 국가적으로 독려하고 지향해야 한다. 하지만 위에 발생한 사건들에서 우리가 잊지말아야 할 교훈은 '기본'이다. 그렇다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기 전에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은 무엇일까? 바로 '가정'이 아닐까 생각한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란 말이 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되어 나간다'는 말이다.

가화만사성과 함께 자주 쓰이는 한자어로 '소문만복래(笑門萬福來)'라는 말도 있다. '집안이 화목하려면 여유와 웃음이 있어야 하며 웃음이

있으려면 입과 혀를 거칠게 놀리지 말아야한다.'라는 뜻이다.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입과 혀를 거칠게 놀리지 말아야 하는데도 우리는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입과 혀를 거칠게 놀리면 서 싸움을 하고, 다툼을 하는 건 아닐지? 내 아이를 본인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노인관련시설, 화재예방만이 살 길



김병주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장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1월 기준 보성군 인구는 총 3만 8549명으로 이 중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내 가족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소문만복래(笑門萬福來)'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 가족은 물론, 내 주변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다.

잊지 말자! 모든 일은 '기본'이 중요하고,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하기 위한 기본은 '가정'이란 것을...

65세 이상인 고령인구는 1만 5854명(41%)이다.

비단 보성군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지역 노인 고령화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우리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화재와 안전대책 마련을 서둘러 강구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과거 노인분들을 집에서 모시는 문화에서 이제는 급변하는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따라 전문노인요양시설에서 그들의 건강과 행복을 관리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두 예약된 노인이 아닌가... 노인을 위한 나라,

그 준비를 위한 노인관련시설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과 관심을 쏟아야 할 지 깊게 생각해 볼 시간이다.

필자는 생각하는 제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안전교육 그리고 실제와 같은 훈련이다.

노인관련시설에서 초기 진화와 대피 유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노인관련시설의 근무자는 한정되어 있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화재 및 사고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에서 안전 점검 강화와 안전의

식의 고취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노인관련시설의 대부분이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고 소방차 출동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하거나 차대 등 병행으로 자력 탈출이 불가능한 노인 환자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평소 자위소방대의 초기 진압과 인명 대피 유도에 대비한 훈련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화재 예방 100%가 될 수 있도록 노인관련시설의 안전의식 함양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것이다.

기사제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전화(062)363-8800 팩스(062)362-0078

2000년 11월 25일 창간(임간) 등록번호 광주가-8(2000년 11월 10일)

호남매일 www.homae.co.kr

Table with columns: 발행·편집인, 고계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춘의. Includes contact info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사장실, 광고국, 편집국, 서울취재본부, 인쇄취재본부, 편집국장, 정·경부, 사회부, 문체부, 지역사회부.

Large advertisement for Honam Maeil newspaper. Features a bamboo forest background, slogan '푸른 언론의 길을 지향하는 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and contact information for subscriptions and advertising.